초기 승가, 어떻게 건강 다스렸나

초기불교의학 관련 연구 논문 2편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이 든다. 이는 부처님도 스님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율장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섭취하는 약과 음식에 대해 기술해 놓고 있다. 일종의 '불교의학'으로 이를 전문 연구한 논문이 최근 잇달아 발표됐다.

〈한국불교학〉 제88집(2018)에 수록된 한수진(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연구논문 '율장에 나타난 약이 되는 음식'은 질병 치료를 위해 초기불교 당시 수행자들이 섭취한 약식(藥食)을 율장에 근거해 분석했다. 해당 논문은 신성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한수진 씨는 율장을 통해 약을 복용시간과 저장 기간을 나눠 시약(時藥) · 비시약(非時藥), 칠일약(七日藥) · 진형수약(盡形壽藥)으로 각각 구분했다.

시약은 걸식을 통해 얻는 것으로 주로 일상 식재료의 음식이며, 비시약은 과일이나 즙 등 일종의 간식이었다. 칠일약은 우유나 버터, 제호(치즈) 등 유제품을 의미하며, 진형수약은 평생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약으로 뿌리 채소, 소금 등이 주를 이룬다.

한수진 씨는 "시약과 비시약은 수행자에게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이면서 음식이었다"면서 "아유르베다에도 많은 효능이 있다고 기술된 버터, 유지, 꿀 등을 칠일약으로 분류해 7일간만 섭취토록 한 것은 맛있는 음식으로 식탐을 불러일으켜 수행에 방해가 되고 과도한 섭취 시 병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수진 씨는 율장에 나타난 질병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인도는 몬순기후로 안거 후 수행자의 체력이 고갈되는 '가을병'이라는 풍토병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유제품, 꿀 등을 섭취했다. '풍병'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사리불도 앓았던 병이다.

저자는 "참깨, 멥쌀 등 곡물에 세 가지 매운 맛 채소를 넣어 만든 삼신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풍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음식"이라며 "초기불교에서 병의 치료는 의사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 부처님 역시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불교의학과 아유르베다는 병과 약의 효능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초기불교의학에서는 나름의 치료법을 활용해 불교의학을 정립하고 있다"며 "아유르베다가 고대 인도의학을 하나로 정립한 의학이라면 초기불교의학은 '부파불교의학'의 집대성"이라고 강조했다.

'율장 나타난 약이 되는 음식'
율장 기술된 藥食에 대해 분석
아유르베다와 불교의학 비교
수행자 위의 고려해 치료 반영
부처님도 상당한 의학지식 가져

'진기약에 관한 일고찰'
병 걸린 비구 복용하는 진기약
최소 소유토록 한 율장 바탕하고
인도 전통 요료법에 뿌리를 둬
치료보단 예방에 주된 활용 추정

양경인(동국대 인도철학 박사과정 수료) 씨의 연구논문 '진기약(陳棄藥)에 대한 일고찰'은 출가비구가 병에 걸렸을 때 먹는 약으로 알려진 '진기약'의 의미 등을 분석했다. 이는 〈불교학연구〉 제57호(2018)에 수록됐다.

진기약은 율장에서 사의법(四依法) 관련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가 사문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인 사의법은 분소의(衣), 걸식(食), 수하좌(住), 진기약(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기약은 "출가사문이면 반드시 지녀야할 물품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약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기약을 언제, 얼마큼 복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 진기약의 성분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소의 분뇨'다. 이 역시 불교 전래 과정에서 오역되고 전해져 각각의 처방이 달랐다. 저자는 7세기 당나라 구법승 의정이 저술한 〈남해귀내법전〉을 주목했다. 이는 의정이 실제 인도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정리한 율서(律書)로 전체 40장 중 1장을 진기약에 할애했다.

의정은 진기약의 어원을 분석했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푸티묵타바이샤쟈(pūti-muktabhaiṣajya)'라고 한다. 포제(pūti)를 분석하면 '썩은 냄새(腐臭)를 풍기다'라는 의미인데 '진(陳-오래되다)'에 해당되며, 목저(mukta)는 '풀어놓아진, 떼어버려진'이라는 의미로 '기(棄-버리다)'를 상징한다. 비살사(bhaiṣajya)는 '약(藥)'을 의미해 단어 전체를 의역하면 진기약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진기약은 인도 전통의 '요료법(尿療法)'에 근간한다고 봤다. 양경인 씨에 따르면 율장에서 소의 분뇨를 정화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황달과 같은 특정한 질병에는 복용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약건도〉에서는 소의 오줌과 미로발란(가자나무 열매 말린 것)을 섞어 먹으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인도의 요료법을 적용한 예"라는 것이다.

양경인 씨는 "진기약의 실체는 가장 기본적인 '소의 오줌' 자체"라면서 "진기약에 등장하는 발효라는 거창한 법제가 아닌 진기의 의미를 살린 '오래 묵힌 소의 오줌'이라 추정된다"고 봤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진기약이 최소한의 물품을 소지하고 그에 의지하던 수행자의 것"이라며 "고가의 약제를 섞은 약을 지니고 처방하는 의미보다는 아유르베다의 전통에 입각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균형이 깨졌을 때 예방하는 용도로 지닌 약"이라고 설명했다.

간월사지 석탑 등 울산 유형문화재 지정

울산시, 유형문화재 2건
1월 10일 신규 지정고시

울주 간월사지 석탑과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간월사지 남 · 북 삼층석탑(유형문화재 제38호)',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물 일괄(유형문화재 제39호)' 등 2건을 유형문화재로 1월 10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간월사지 남 · 북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탑으로, 초층 탑신 중앙에 커다란 문비(門扉)를 두고 좌우에 문을 지키는 수호신인 권법형 금강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석탑의 기단부의 일부와 2층 탑신이 결실되어 새로운 부재를 보강하여 복원되긴 했으나, 기단의 짜임새와 금강역사의 조각 표현 방식이 뛰어나 신라석탑의 우수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간월사지 남탑(사진 왼쪽)과 북탑(사진 오른쪽)의 모습.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물 일괄'은 본존불인 아미타여래좌상과 대세지보살과 관음보살로 구성돼 있으며, 이 불상들에서 발원문, 후령통과 오보병, 묘법연화경 등이 확인됐다.

본존불은 1649년 조각승 영색에 의해, 좌우의 보살은 이 보다 늦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혜희 계보의 조각승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미타여래상은 넓은 다리 폭의 신체비례, 개성 있는 얼굴, 독특한 수인 등 17세기 불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2구의 보살상은 큰 얼굴에 큼직하게 코를 새긴 것과 옷주름을 날카롭게 새긴 것이 특징이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물 일괄'은 서로 시기를 달리해 조성됐지만, 봉안처와 조성자가 분명한 아미타여래상과 독특한 수인 형식을 가진 보살 등 삼존불의 구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이번 지정으로 울산시의 지정문화재는 총 146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유형문화재는 36건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흥사 중수 역사 '한눈에'

동국대 ABC사업단, '사지자료집5 대흥사 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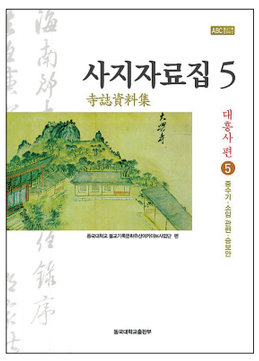
해남 대흥사 중수 역사와 사찰 소임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지자료집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이하 ABC)사업단은 〈사지자료집5 대흥사 편- ⑤ 중수기 · 소임 관련 · 승보안〉을 간행했다.

이번 대흥사 편은 전남 담양의 용흥사에 소장되어 있던 대흥사 고문헌을 본 사업단이 발굴해 소개하는 것으로, 출간한 〈사지자료집5〉는 중수기와 소임 관련 · 승보안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제5권에 수록한 중수기는 대흥사의 전각 및 부속 암자의 중수와 관련된 기록이며, 소임 관련 문서는 대흥사에서 소임을 맡았던 사람의 인명을 기록한 것이다.

승보안은 대흥사에서 처음으로 수계한 승려들의 명단과 수계 연도를 기록했다. 승보안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대둔사에서 자체적으로 수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서 조선시대 불교 교단을 파악하는 데 주목할 만한 자료다.



한편, 동국대 ABC사업단은 전국 각지의 사찰에 소장된 귀중한 불교문헌을 조사하고 가공해 서비스하는 일련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기록문화 연구 현황 · 과제 논한다

불교학연구회, 1월 25~26일

불교기록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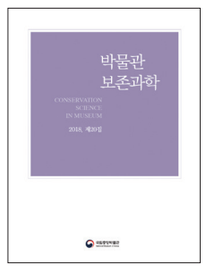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월 25~26일 금강대에서 '천년을 이어온 불교기록문화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도어 사본 연구 현황과 과제(이영진, 금강대)'를 비롯해 '고려 · 조선시대 불교문헌 필사본의 경향과 특징(남권희, 경북대)', '조선후기 연담과 인악의 화엄십지사기 비교(승범 스님, 동국대)' 등 연구 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논문 발표 이후에는 산스크리트어와 고려 · 조선시대 필사본, 사기를 중심으로 불교기록문화 연구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또한, 26일에는 갑사와 마곡사 성지 순례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보존과학' 20집 발간
최신 연구논문 7편 수록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박물관 문화재 보존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수록한 전문 학술연구지인 〈박물관 보존과학〉제20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제20집에는 백제시대 금동관(金銅冠)의 제작 기법을 연구한 이영범(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익산 입점리 1호분 출토 금동관의 제작 기법 연구'와 고대 금속의 상감 기법을 연구한 최기은(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의 '고대 금속 선상감(線象嵌) 기법의 쟁점과 그 해석',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금강사지(金剛寺址) 치미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을 연구한 황현성(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금강사지 치미의 형태적 특징 및 제작기법 비교 연구' 등 7편의 보존과학 논문이 수록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 보존처리와 제작 기법을 연구한 논문과 자료를 수록했다. 문화재 보존 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학술지의 논문 원문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